

피치, 튀니지 장기외화국채 신용등급 2단계 강등 (6.9)

2023.6.13. 주튀니지대사관

1.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6.9. 튀니지 정부의 장기외화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기존의 CCC+에서 CCC-로 2단계 강등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동 보고서에서 ‘피치는 일반적으로 국가신용을 CCC+ 또는 그 이하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포함시킴으로써 튀니지가 이례적인 신용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함.

- 피치측 정의에 따르면 CCC 등급은 실제 디폴트 가능성이 있는 실제적인 신용 위험을, CC는 디폴트의 개연성이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신용 위험을 의미함.

2. 상기 피치 보고서는 아래 요인들을 신용 등급 강등의 요인으로 설명함.

(재정 위기 심화)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IMF와 합의한 프로그램(구제금융)이 조기에 이행되지 못하여 재정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에 불확실성이 발생
 - 피치는 IMF와 합의가 2023년 말까지 이루어지리라 가정하고 있으나 이전의 예상보다 크게 늦어져 위험이 높아진 상황

(재정적 필요 증대)

- 정부의 재정 계획이 IMF 구제금융에 크게 영향을 받는 50억 미불(GDP의 10%)의 대외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재정적 필요는 2023년 GDP의 16%, 2024년 GDP의 14%로 예상되면서 2015-19 평균 9%보다 크게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단기 국내 및 해외 차입 의존도가 증대
 - IMF 구제금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알제리, 아프리카수출입은행, 양자 및 다자 파트너로부터 해외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나 2024년에는 이마저 불확실

(IMF와 협상 및 개혁 중단)

- 2022.12월 실무합의된 IMF와의 협상이 튀니지 대통령의 유류보조금 및

국영기업 구조조정 반대 입장으로 IMF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음.
- 튀니지노동조합(UGTT)과의 합의를 통해 임금 조정을 하기로 한 IMF와의 약속이 재정긴축의 중요한 요소이며, 재정수입 개선을 위한 조치도 시행 중

(외환 문제)

- 경상수지 적자는 관광수입 확대로 인해 2023년 7%, 2024년 6.5%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에너지 및 식량 가격 상승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2023년과 2024년에 35억 미불의 대외자금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임.
 - 정부 외채 만기 도래는 2023년 20억 미불, 2024년 30억 미불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외환보유고는 2023.4월 현재 78억 미불로 수입을 93일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22년 동기의 129일보다 줄어듦.

(기타)

- 재정적자는 긴축정책으로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임금/이자/보조금에 정부 수입의 90% 이상이 쓰이고 있어 지출에 대한 개혁 없이는 재정 지속성에 위험성이 제기됨.
- 재정긴축 계획이 이행된다면 국가부채는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자금을 확보하지 못할시 충격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질 것임.
- 11%의 높은 인플레이, 유럽경제 약세, 개혁에 대한 불확실성, 기상악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악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022년 2.4%에서 2023년 1.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 2.3%로 일부 회복된 이후 상당기간 이 수준에 머물 것임. 끝.